

사서교사의 자아 상태 유형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Ego State Types of Teacher Librarians

송 기 호 (Gi Ho Song)**

초 록

본 연구의 목적은 교류분석이론에서 제시한 이고그램(egogram)을 통해서 사서교사의 자아 상태 유형을 분석하는 것이다. 교사의 바람직한 자아 상태는 A(Adult)와 NP(Nurturing Parent) 그리고 FC(Free Child)가 CP(Critical Parent)나 AC(Adapted Child)보다 높은 것이다. 그러나 사서교사는 CP가 높고 A와 FC가 낮게 나타났다. 이것은 사서교사가 자신의 가치관과 신념을 바른 것이라고 여기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양보하려 하지 않고 규칙과 규범을 강조하는 완고한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서교사의 자아 상태는 학생의 자주적 학습을 강조하는 구성주의 학습 환경에서 교수자로서의 역할 수행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사서교사 양성과정에서 교수자는 물론 교수 파트너로서의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교육정보봉사 영역과 교육용 콘텐츠 및 수업용 자료 개발 프로그램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ego state types of teacher librarians by using egogram of the Transactional Analysis. It is the ideal ego state types for teachers that NP (Nurturing Parent), A (Adult) and FC (Free Child) are much higher than CP (Critical Parent) and AC (Adapted Child). But the teacher librarians are under higher CP and AC rather than A and FC. It means that the teacher librarians consider their values and belief as right things. Also it seems that they have not a conciliatory attitude but a hardened attitude that emphasize rules and standards. These ego state may be obstacle to their instructors role under the constructivist learning environment highlighting self directed learning of students. So, in the training course for the teacher librarians, informational and educational service course and development programs of education contents and instructional materials should be reinforced in order to strengthen their teaching competence and partnerships.

키워드: 사서교사, 자아 상태, 자아 유형, 교류분석, 이고그램

Teacher Librarians, Ego State, Ego Types, Transactional Analysis, Egogram

* 이 논문은 2013년 공주대학교 학술연구지원사업의 연구비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공주대학교 사범대학 문헌정보교육과 조교수(giho7@kongju.ac.kr)

논문접수일자 : 2014년 4월 28일 논문심사일자 : 2014년 5월 26일 게재확정일자 : 2014년 6월 11일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5(2): 77-95, 2014. [<http://dx.doi.org/10.14699/kbiblia.2014.25.2.077>]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어린이와 청소년의 학교생활은 신체적·사회적인 변화와 진학과 취업 같은 교육 환경의 변화를 겪는 인생의 전환기이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줄여주기 위한 가정과 학교의 노력이 필요하다(Sarason and Sarason 2001, 189). 따라서 학교 교육에서 교사의 역량은 배경학문에 대한 전문성뿐만 아니라 학생의 생활지도와 학습 환경 조성 그리고 대인관계와 의사소통능력과 같은 비교과적 영역을 포함한다.

학생지도 측면에서 보면, 사서교사는 학교 도서관이라는 교육 환경에서 학생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다양한 문제와 장애 희망 등에 대해서 얘기를 나눌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갖는다. 이러한 기회를 통해서 사서교사는 학생에게 긍정적인 성인의 모범을 보여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학생의 스트레스 극복에 기여할 수 있다(Doll and Doll 2010, 3). 특히 학교도서관은 학생, 교사, 학부모 등 다양한 정보요구를 가진 공동체 구성원 간에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공간이다. 따라서 사서교사의 긍정적인 대인관계능력과 인성은 편안하고 친근한 도서관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파트너십은 물론 이용자의 정서적인 접근성을 향상시키는데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IFLA/UNESCO(2002)가 발표한 『학교도서관 기준』에서는 사서교사의 가장 기본적인 자질 중 하나로 '어린이 및 성인과 능동적이고 열린 마음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Montiel-Overall(1995)이 협동수업에 참여하는 사서교

사와 교과교사의 관계 발전 단계(협력-협조-통합교수-통합교육과정)에 영향을 끼치는 공통적인 속성으로 '상호작용과 의사소통 그리고 대화'를 꼽은 것은 주목할 만하다. 특히 Woolls(1999, 88-89)는 사서교사가 학생지도 시 유의해야 할 사항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학생이 겁먹지 않도록 하고 존중한다, 명령조의 말투를 삼가 한다, 개인적인 기분이 도서관 운영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함으로써 긍정적이고 사려 깊고 융통성 있는 교사로서의 명성을 얻도록 한다, 학생을 부드럽게 대하고 체벌을 하지 않는다. 도서관에서의 잘못된 행동 때문에 학생을 교실이나 교과교사에게 돌려보내지 않는다.' 등을 제시한바 있다. 이러한 언급은 사서교사가 학생을 공평하게 대하고 양육적인 태도로 지도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추어야 함을 강조한 것이다.

학생지도는 교사의 바람직한 인성에 바탕을 두고 이루어질 때 학생의 성장발달에 긍정적이며 지속적인 영향을 준다. 따라서 사서교사가 교수자와 교수 파트너로서 학생지도에 긍정적이고 지속적인 영향을 주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자아 상태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부정적인 구조 요인을 바로잡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1.2 연구 목적 및 방법

본 연구의 목적은 교류분석(Transaction Analysis) 이론에서 제시한 이고그램(egogram)을 통해서 사서교사의 기능적 자아 상태 유형을 분석하는데 있다. 또한 이고그램의 자아 상태가 지닌 일반적인 특징이 연구에 참여한 사

서교사의 개인별 배경에 따라서 어떠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가를 밝히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서 사서교사가 바람직한 대인관계의 기본이 되는 자기를 이해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특히 구성주의 학습 환경에서 학생지도와 학교도서관 서비스 활성화에 적합한 사서교사 양성 교육에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아 상태 측정도구(부록 참조)는 이병래(1997)가 개발한 검사 척도를 일부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이 체크리스트는 예비 유아교사의 자아 상태 유형 연구(박화운, 최인숙, 천은영 2003)와 서비스업 종사자의 자아 상태 요인과 직무만족도 분석(최창호 2011) 등에 활용되었다. 이 체크리스트의 문항 수는 5가지 자아 상태 유형별로 10개씩 총 50문항이다. 각 문항은 5점 척도로 자아 상태 유형별로 50점 만점으로 구성하였다. 그리고 자아 상태 측정을 위한 문항의 신뢰도(Cronbach's Alpha) 평균은 .684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이고그램 체크리스트의 문항 구성 및 신뢰도 계수를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설문 내용은 우선 자아 상태 유형별 표준 점수를 산출하여 사서교사의 자아 상태 특징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개인별 특성(성별, 연령대

별, 근무 학교 급별, 근무 학교 소재지별)에 따라서 자아 상태 유형에 대한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SPSS WIN 15.0 프로그램으로 일원 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다.

1.3 연구 참여자

사서교사의 자아 상태 측정을 위한 설문은 한국학교도서관협의회가 시·도교육청별 회원수를 고려하여 추천한 250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설문기간은 2014년 2월 17일부터 3월 21일까지 진행되었으며, 지역별 또는 학교 급별로 참여자가 저조한 경우 직접 전화를 걸어 설문 참여를 독려했다. 본 연구에 참여한 최종 사서교사는 100명(40%)이다.

2. 이론적 배경

2.1 교류분석

교류분석 또는 상호작용 분석법은 정신과 의사인 Berne이 1950년대에 창시한 상담 및 치료 이론이다. 교류분석에 따르면 인생 초기에 부

<표 1> 이고그램 체크리스트 문항 구성 및 신뢰도 계수

자아 상태 유형	문항 번호	문항 수	신뢰도 계수(Cronbach's Alpha)
CP(비판적 아버지 자아)	3, 5, 10, 14, 20, 23, 27, 29, 39, 44	10	.635
NP(양육적 아버지 자아)	6, 7, 12, 17, 24, 42, 43, 46, 48, 50	10	.731
A(성인 자아)	1, 8, 15, 19, 21, 33, 36, 40, 41, 49	10	.673
FC(자유로운 어린이 자아)	2, 9, 22, 28, 32, 34, 37, 38, 45, 47	10	.741
AC(순응적 어린이 자아)	4, 11, 13, 16, 18, 25, 26, 30, 31, 35	10	.638
문항 계	50 문항		평균 .684

모나 연장자와 같은 외적사태와의 관계에서 이루어진 언어적 혹은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의 질이 개인의 성격 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현재 개인의 일상생활에서 이루어지는 인간관계의 성질을 결정한다(이성태 2006, 179). 교류분석은 인간관계의 기본 수단인 의사소통과정을 의사거래 자극과 반응의 연쇄적 상호작용의 과정으로 본다. 여기서 자극과 반응은 교류적 자극과 교류적 반응을 주고받는 것을 말한다(Steiner 2005, 104). 타인과의 의사소통과정에서 인간은 세 가지 자아 상태 중 어느 한 상태에서 자극을 보내고, 상대방도 자신의 한 자아 상태에서 반응한다. 이러한 형태로 의사소통을 주고받는 것을 교류라고 한다. 의사소통과정에서 상대방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자아 상태가 무엇인가에 따라서 담겨진 의도가 다르며, 상대방의 어느 자아 상태로 메시지를 보내는가에 따라서 기대하는 반응도 다르게 나타난다. 따라서 교류분석에서의 의사거래 유형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먼저 자아 상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김옥희, 박미하 2011, 39). 결국 이러한 자기 이해는 타인 이해를 통한 인간관계 개선과 자아실현의 발판이 된다.

교육도 넓은 의미로는 학습자와 교수자의 의사소통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인간관계 이해와 개선 방법을 보여주는 교류분석을 활용하면 학습자의 특징과 요구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물론 교수자 본인의 의사소통 역량을 개발하는데도 도움을 얻을 수 있다.

2.2 자아 상태

자아 상태란 일관된 유형의 감정과 경험 그

리고 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일관된 행동을 의미한다. 따라서 자아 상태는 개인의 현재 상태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감정, 태도 및 행동 유형과 행동에 대한 논리적인 이유를 알려주고 행동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Williams and Williams 1980, 120). 교류분석에서는 자아 상태를 크게 구조적 자아 상태와 기능적 자아 상태로 나누어 설명한다. 이 중에서 Berne이 1964년에 제시한 P-A-C 성격구조이론은 교류분석의 구조적 자아 상태를 의미하며, P(parent ego state: 어버이형 자아 상태), A(adult ego state: 성인형 자아 상태), C(child ego state: 어린이형 자아 상태)와 같이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한다. 이후 Dusay가 1977년에 Berne의 세 가지 자아 상태를 특이한 행동의 원천 및 성격과 관련된 에너지 양으로 각각 분리하였는데 이를 기능적 자아 상태라고 한다.

세 가지 자아 상태의 형성과정과 기능적 분류를 살펴보면(김규수, 이병래 1995, 321-322; 김종재 2006, 205), P는 출생에서 5세 사이에 부모나 그에 준하는 사람들이 느끼거나 생각하거나 행동한 것이 의미 있는 전달물이 되어 그 사람 속에 도입된 것이다. P는 기능상 NP(Nurturing Parent: 양육적 어버이 자아 상태)와 CP(Critical Parent: 비판적 또는 통제적 어버이 자아 상태)로 나누어진다. P에 기록된 경험들은 후에 개인의 생활양식에 합리적·비합리적인 기초 자료로 영향을 끼치며, 강박관념, 궤변, 편견을 가져오는 원천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A는 12세가 되어야 충분히 발달하기 시작하는 가장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바람직한 자아 상태이다. A가 우세한 사람은 업무중심의 분명한 의사결

정을 내리며, 의사결정 시 정확한 판단력을 근거로 행동한다. C는 가장 먼저 발달하며 출생 후 5세까지 주로 부모와 관련된 외적 사태들에 대한 어린아이의 감정적 반응체계가 내면화된 것이다. C는 감정적인 부분이 많은 영향을 미치며, 기능면에서 AC(Adapted Child: 순응적 어린이 자아 상태)와 FC(Free Child: 자유로운 어린이 자아 상태)로 나뉜다.

2.3 이고그램에 의한 자기이해

이고그램은 자아 상태를 기능적으로 파악하고 세 가지 자아 상태(P-A-C) 사이에 흐르고 있는 심적 에너지 상태를 그래프 화하여 시각적으로 파악한 것이다. 이고그램을 활용하면 건설적으로도 되고 파괴적으로도 되는 인간의 감정에 따른 행동 특성을 비교할 수 있다. 따라서 외부에 드러난 사고, 감정, 행동 등을 보고 그 사람의 자아 상태를 추정할 수 있다(한국교류분석학회 2012). 그리고 대인관계에서 의사소통과 관련한 문제를 개선하거나 질적 향상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김종호 2009, 92). 왜냐하면 이고그램 중 '가장 높은 부분은 무엇인가 문제가 생겼을 때나 스트레스 상황에 즉각 반응하는 자아 상태이고, 가장 낮은 부분은 정신 에너지가 가장 불충분해서 성격 중에서 매우 활발하지 못한 부분'(우재현 2008, 48)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고그램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마음의 존재 양식에 해당하는 기능별 자아 상태의 유형별 특징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다. 주요 특징을 정리하면(한국교류분석학회 2012; 우재현 2013, 4-8), P는 자신의 부모가 사용하거나 현재 사

용하고 있는 말투, 생각 그리고 몸짓에 의해서 자신을 나타낸다. 예를 들면 '좋다, 나쁘다'와 같은 가치 판단이나 도덕, 윤리관 등에 기인한 말은 P에서 나온 표현이다. 특히 CP는 자신의 가치관이나 신념 그리고 태도 등을 바른 것이라고 여기고 다른 사람의 권리를 고려하지 않으며 비현실적인 주장을 하거나 다른 사람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행동을 하게 된다. 이러한 자아 상태가 지나치게 강하면 독단적이고 지배적인 태도, 명령적인 말투, 칭찬하는 것보다는 질책하는 경향이 전면에 나타난다. 반면에 NP는 친절, 동정, 관용적인 태도를 가지고 타인을 배려하는데 관심을 갖는다. 아이들이나 후배를 북돋아주고 격려하고 가족처럼 불편한 점을 보살피는 것이 이 자아 상태의 주된 성향이다. 아이가 헌신적인 부모에게서 양육되면 그 아이에게도 양육적인 말이나 몸짓이 수반된 자아 상태가 발달하지만, 지나치면 타인을 관계 중심으로 조종하려는 위험성이 있다.

C는 어린 시절에 실제로 느끼거나 행동했던 모습 그 자체나 그와 유사한 느낌이나 행동을 표출하는 상태로 세 가지 자아 중 가장 먼저 발달한다. 기능적으로 FC는 자기중심적이고 적극적임과 동시에 호기심이나 창조성이 강하다. 따라서 부모나 상사, 연장자의 반응에 구애받지 않고 자발적으로 자신을 자유롭게 나타낸다. 이 자아 상태가 지나치게 강하면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경솔한 행동으로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반면에 AC는 부모나 권위적인 인물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경우로 자신의 솔직한 감정이나 욕구를 누르고 부모나 교사의 기대에 따르려고 노력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따라서 자기주도적으로 일처리를

하기보다는 타인에게 의지하려는 태도가 강하다. 또한 평상시에는 좋은 아이, 착한 아이지만 장래에 뜻하지 않는 반항이나 격노를 나타내기도 한다.

A는 인격 중에서 사실에 근거하여 사물을 판단하는 태도가 강하다. 따라서 정보 수집 지향적이며 사실적인 부분을 평가하려는 성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사람은 A를 통해서 자신을 보다 현실적으로 점검할 수 있으며, P와 C를 중재할 수 있다. 그러나 A가 지나치면 냉정한 인상을 주며 정서가 메마른 기계적인 인간으로 평가받기도 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자아 상태 유형별 특징과 강화 방법을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표 2> 자기이해를 위한 자아 상태 유형별 특징

자아 상태	긍정성	부정성	이 부분이 강하면 잘 나오는 말·태도	이 부분이 부족할 때 나타나는 특징	강화 방법
NP (양육적 아버지 자아 상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의 어려움을 자신의 일처럼 돌보고 배려하는 행동 • 마음이 온화하고 따뜻하며 상대를 지지하고 격려하는 언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대를 지나치게 보호하고 개입하여 자주성을 해치는 언동 • 지나치게 동정적이어서 남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는 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좋았어요. • 잘 할 수 있어요. • 맡겨주세요. • 가없게요. • ~이 걱정된다. • 만족감을 준다. • 우아하고 부드러운 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냉담한 태도 • 거절적인 자세 • 타인의 말에 매우 좋다는 태도 • 타인을 자신의 제물로 삼기 쉬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이를 품에 안고 등을 두들겨 준다. • 요리, 과자를 만들어 다른 사람을 대접한다. • 타인에 대한 서비스와 친절을 항상 명심한다.
CP (비판적 아버지 자아 상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잘잘못을 지적하고 선악을 구분해주는 언동 • 자신의 신념 또는 가치관으로 개인이나 조직을 이끄는 행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대를 위압적이고 강압적으로 제압하려는 언동 • 권위적이고 엄격하여 상대의 가치를 받아들이지 않는 배타적인 언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보 • 틀렸잖아 • ~해야 할 것이다. • 타인을 내려다본다. • 단정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책임 • 느슨한 태도 • 다른 사람의 말에 구속받음 • 아니오 라고 말할 수 없게 됨 • 비판력이 없어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간이나 금전에 조금 더 철저하게 행동한다. • 생활의 시간표를 세우고 지킨다. • 지금보다 조금 더 타인에게 주의를 주도록 한다.
A (성인형 자아 상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실에 입각한 판단과 분석적이고 냉철한 계획에 입각한 행동 • 사물을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로 접근하는 언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미보다는 기계적으로 일을 수행하는 냉정한 태도 • 감정이 통제되어 일 이외에는 즐기지 않고 감정이 무뎠던 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왜? • 비교 검토하면 • 나의 의견은 • 구체적으로 말하면 • 이치를 따진다. • 계산이 빠르다. • 언질을 놓치지 않는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실을 잘 모름 • 엉터리(날림) • 열간이 소리를 들음 • 상황판단을 잘 못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텔레비전 뉴스나 과학 프로그램을 본다. • 가계부나 출납부, 일기를 확실하게 기록한다. • 체스나 바둑과 같은 논리적인 게임을 익힌다.
AC (순응적 어린이 자아 상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대에게 순응적이고 협조적인 언동 • 의사결정에 있어서 신중하고 조심성 있는 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대의 눈치를 보고 비위에 맞추어 자신의 감정을 억압하는 태도 • 자기비하와 열등감으로 억압된 감정을 분노나 반항으로 나타내는 언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차피 나 같은 놈은 잘 이해가되지 않아요. • 사랑은 어떻게 합니까? • 어떻게 할까요? • 항상 주저주저하고 있다. • 다른 사람을 거역할 수 없다. • 기색을 선명하게 하지 않는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항적으로 됨 • 독선적으로 됨 • 어두운 얼굴 • 심술꾸러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잘 들어주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한다. • 친구나 가족이 선택한 TV 프로그램에 조용히 따른다. • TV를 보면서 주인공에 맞추어 감정을 표현한다.
FC (자유로운 어린이 자아 상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정과 행동을 자유롭게 자연스럽게 표출하여 상대에게 즐거움을 주는 언동 • 생각을 곧바로 행동으로 옮기는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동적이고 자기도 취적이어서 생활 전반에 질서가 잡혀있지 않은 언동 • 감정이 절제되지 않아 실수나 경솔한 행동이 많아 가볍게 보이는 언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 뻘어! • 와! 훌륭해 • 정말? • 들떠있는 경우가 많다. • 약의가 없다. • 주변의 이목은 생각하지 않는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기력 • 분위기를 깨는 사람 • 가면을 쓴 사람 • 서투름 • 인생을 즐기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화, 유머소설을 읽는다. • 애써 유아와 접하도록 한다. • 다른 사람의 얼굴을 보고 어떤 동물을 닮았는가를 상상한다.

출처: 한국교류분석학회 [online]. [cited 2014.4.15]. <http://www.ta.or.kr>; 김종호 2008, 881; 우재현 2008, 57-58의 내용을 토대로 재구성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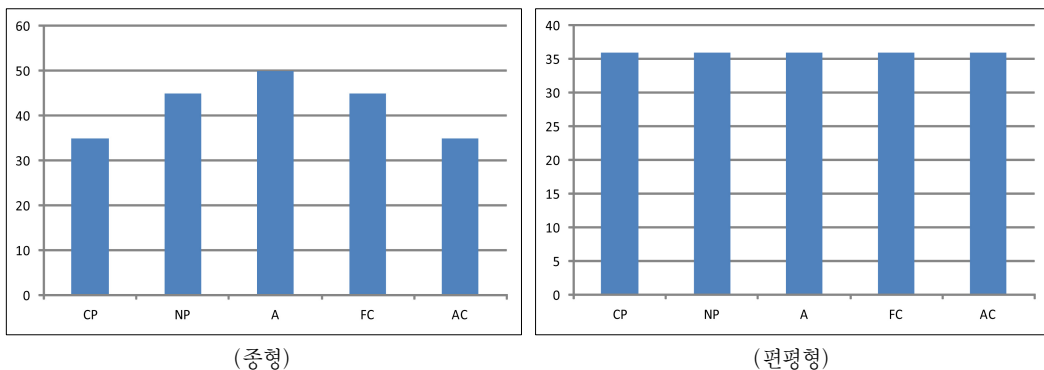
3. 선행연구 분석

교류분석을 통한 개인의 성격 유형 분석은 상담과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다. 특히 교사의 자아 상태 유형에 대한 연구는 교사의 의사소통능력이 지식을 조직하고 표현하는 중요한 핵심 역량일 뿐만 아니라 학생의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는 중요한 외적 사태라는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20가지의 이고그램 사례를 개발한 Dusay (1993)에 따르면, 바람직한 이고그램은 종형(Bell-shaped) 또는 편평형(Flat-top)이다. 종형은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A가 가장 높고 NP와 FC가 그 다음으로 많은 에너지를 가지고 조화를 이루는 형태이다. 그리고 편평형은 모든 자아 상태가 비슷한 수준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형태이다.

한편 박명희(2004)는 대인 관계에서의 기본적인 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고그램을 7가지 형태로 구분하였다. 우선 산(山)형(보통형)은 NP를 정점으로 하고 있어서 대인 관계가 대체적으로 원만한 유형이다. N형(나

이팅게일형)은 NP를 정점으로 FC가 낮고, AC가 높기 때문에 헌신적이며, 자기 부정적인 성향을 보이는 유형이다. 역N형(도널드덕형)은 CP와 FC가 높고 NP와 AC가 낮아 자기주장이 강하고 책임을 타인에게 돌리는 경향을 보인다. 그리고 V형(햄릿형)은 CP와 AC가 높기 때문에 책임감이나 사명감에 사로잡혀 있는 엄격한 자신과 타인으로부터의 평가에 신경을 쓰는 자신이 끊임없이 갈등을 반복하는 것이 특징이다. W형(베르테르형)은 CP와 AC 그리고 A가 높아 쉽게 자포자기나 침울한 상태가 될 수 있는 유형이다. M형(우상형)은 NP와 FC가 높고 CP, A 그리고 AC가 낮은 형태로 호기심이 많고 즐거운 것을 좋아하며 분위기를 주도하는 유쾌한 태도를 가진 사람에게 많이 나타나는 유형이다. 끝으로 우경사형(보스형)은 CP가 가장 높고 NP, A, FC, AC가 점차 낮아지는 형태로 타인의 의견에 귀를 잘 기울이지 않는 태도를 보인다. 한편 우재현(2008, 48-55)은 다양한 이고그램 관찰 결과를 토대로 질병과 생활방식에 따라서 유형을 구분하였다. 그의 분류에 따르면 일중독형(NP 우



<그림 1> 이상적인 자아 상태 유형

위), 우울증형(CP 우위), 비행청소년형(NP와 FC 우위 A 낮음), 비만형(FC 낮음), 건전한 사람형, 자타부정형(AC 우위 NP 낮음)으로 이고그램을 나눌 수 있다. 이 중에서 건전한 사람형은 앞서 살펴 본 산(山)형에 해당하는 것으로 타인과의 사이에 따뜻한 교류가 일어나기 쉽고, FC도 어느 정도 높기 때문에 자신을 적절히 표현할 수 있어서 훌륭한 인간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경우에 해당한다.

Novojenova와 Sawilowsky(1999)의 연구에 따르면, 담임교사의 인성이 수업에서 학생과의 의사소통과 인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담임교사가 사실에 입각해서 판단하고 사물을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로 접근하는 A 우위의 자아 상태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학생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치원 교사의 자아 상태 유형에 대한 연구(김규수, 이병래 1995)를 보면, NP가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연령이 높을수록 CP가 높고, FC는 20대가 높은 반면에 A는 30대 후반 이후에 높게 나타났다. 또한 유아교사의 자아 상태와 직무 만족에 대한 연구(오영희 외 2008)를 보면, FC가 높을수록 동료와의 관계에서 만족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유아교사는 자신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거나 창조적, 직관적, 자발성 등과 관련된 FC가 낮았다. 이후 예비 유아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이태영, 김명하 2013)에서도 NP가 높게 나타나고, CP가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유아 교사가 상호작용과 돌봄이나 헌신과 같은 인간 중심의 가치를 중시하는 교육과정을 통해서 교사의 특성을 함양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초등학교 교사의 자아 상태 유형을 분석한 결과(이은주 2007)를 보면, NP와 A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초등학교 교사들이 본인의 신념이나 가치체계를 상대방에게 주입하려는 경향보다는 타인에 대한 배려심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초·중등 예능교사(음악·미술·무용)의 자아 상태 유형을 분석한 결과(이은주 2011)에서는 A가 가장 높고, NP와 AC 그리고 CP순으로 낮아지는 자아 상태를 보였다. 특히 FC가 가장 낮게 나타났는데 이것은 교수활동에서 예능교육과 관련된 열정적, 직관적, 창조적, 적극적, 자율적, 자발적, 행동적, 개방적, 낙천적인 교수행동 특성이 낮게 사용된다는 의미이다.

선행 연구 내용을 종합하면 교사의 가장 바람직한 자아 상태는 A와 NP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이지만, 교과와 특성이나 양성 과정에 따라서 서로 다른 자아 상태 유형이 존재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학생을 이해하고 학생의 창의적이고 자주적인 학습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교사의 FC 개발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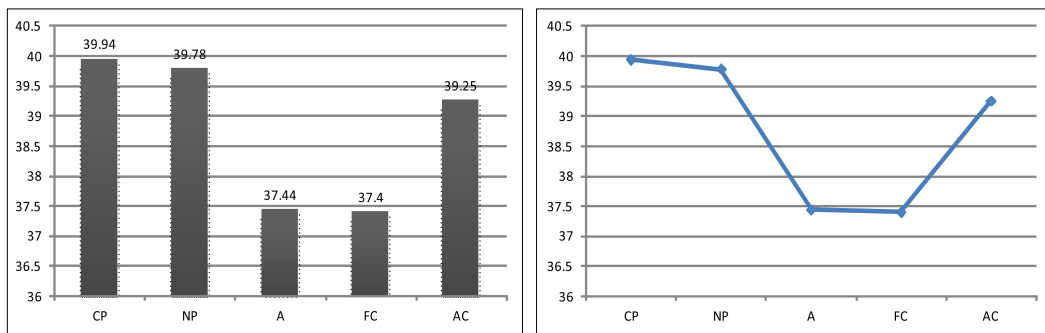
4. 사서교사의 자아 상태 분석

4.1 사서교사의 자아 상태 유형

분석 결과 본 연구에 참여한 사서교사의 자아 상태 점수 분포는 <표 3>에서 보는바와 같이 CP-NP-AC-A-FC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NP와 A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다른 교사의 자아 상태와는 차이가 있는 것이다.

〈표 3〉 연구 대상 사서교사의 자아 상태 점수

자아 상태	N	Minimum	Maximum	Mean	SD
CP	100	34.00	48.00	39.9400	2.93987
NP	100	32.00	49.00	39.7800	3.45996
A	100	28.00	44.00	37.4400	3.02955
FC	100	21.00	45.00	37.4000	4.12188
AC	100	21.00	48.00	39.2500	4.06109



〈그림 2〉 사서교사의 자아 상태 유형

사서교사의 자아 상태 유형은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상적인 자아 상태인 중형이나 편평형과는 달리 CP와 AC가 높은 'V형'에 가까운 형태를 보였다. 즉 유치원 교사나 초등교사에게서 높게 나타난 NP에 비해서 CP가 가장 높고, P와 C를 중재하는 A가 낮게 나타났다. CP의 긍정적인 특징은(〈표 2〉 참조) '잘잘못을 지적하고 선악을 구분해주는 언동과 자신의 신념 또는 가치관으로 개인이나 조직을 이끄는 행동'을 보인다는 점이다. 반면에 CP는 '상대를 위압적이고 강압적으로 제압하려는 언동이나 권위적이고 엄격하여 상대의 가치를 받아들이지 않는 배타적인 언동'과 같은 부정적인 측면을 갖는다. 지배적이고 비판적인 특징을 갖고 있는 CP와 의존적이고 자기비하적인 속성을 갖고 있는 AC가 높은 V형은 '책임감이나 사명감에 사로잡혀 있는 엄격한 자신과 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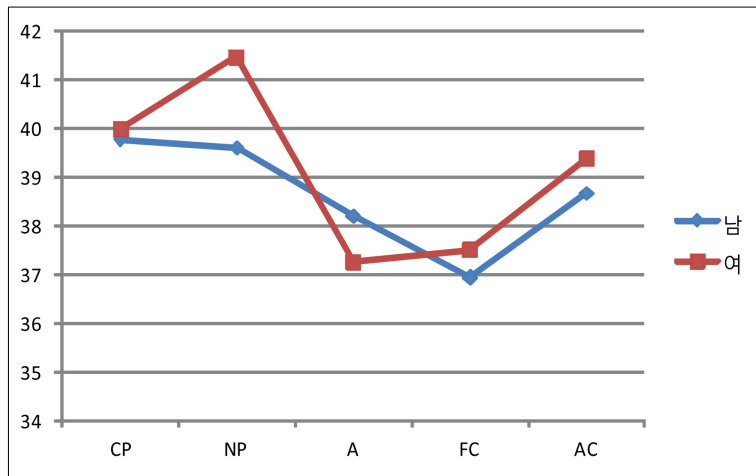
인으로부터의 평가에 신경을 쓰는 자신이 끊임 없이 갈등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박명희 2004, 16). P와 C를 조절하는 A는 '사실에 입각한 판단과 분석적이고 냉철한 계획에 입각한 행동'을 하는 특성을 갖는다. 따라서 A가 부족한 경우에는 현실을 잘 모르거나 상황을 적절하게 판단하지 못할 수 있다.

4.2 개인별 특징에 따른 자아 상태 비교

연구에 참여한 사서교사의 성별 자아 상태 유형을 분석한 결과 〈표 4〉 및 〈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남교사는 CP-NP-A-AC-FC 순으로 CP 우위의 자아 상태를 보였다. 여교사의 경우에는 NP-CP-AC-FC-A순으로 NP 우위의 자아 상태가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성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F<.05)은 아니었다.

〈표 4〉 사서교사의 성별 자아 상태 유형 분석 결과

성별	N	CP			NP			A			FC			AC		
		M	SD	F	M	SD	F	M	SD	F	M	SD	F	M	SD	F
남	19	39.79	2.95		39.61	3.95		38.21	3.52		36.95	3.91		38.68	6.03	
여	81	39.98	2.95	.061	41.47	3.34	.942	37.26	2.90	1.53	37.51	4.19	.281	39.38	3.48	.453
계	100	39.94	2.94		39.78	3.46		37.44	3.03		37.40	4.12		39.25	4.06	



〈그림 3〉 사서교사의 성별 자아 상태 이고그램

NP의 긍정적인 측면은(〈표 2〉 참조) ‘남의 어려움을 자신의 일처럼 돌보고 배려하는 행동’을 보이지만 지나치면 ‘상대를 지나치게 보호하고 개입하여 자주성을 해치는 언동’을 할 수 있다. 사서교사의 성별 자아 상태를 이고그램으로 제시하면 〈그림 3〉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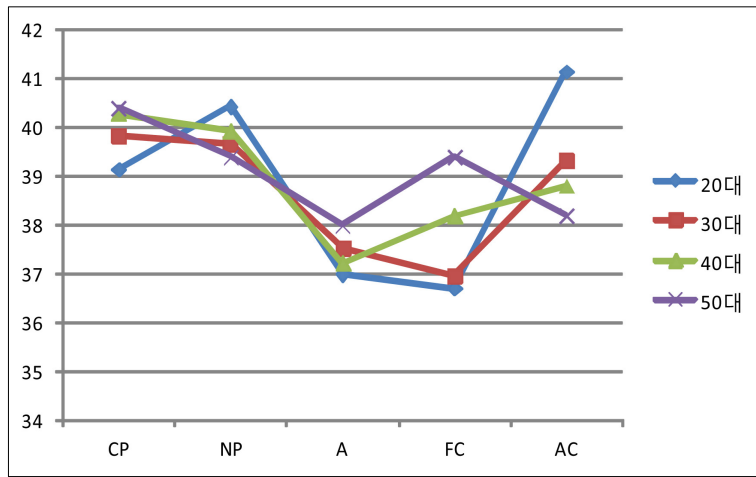
연령별로 사서교사의 자아 상태를 분석한 결과 〈표 5〉 및 〈그림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대는 AC-NP-CP-A-FC순으로 AC 우위의 자아 상태를 보였다. 30대와 40대는 CP-NP-AC-FC-A순으로 CP 우위의 자아 상태를 나타냈다. 그리고 50대는 CP-NP / FC-AC-A순으로 CP 우위의 자아 상태를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연령이 높을수록 CP가 높게 나타난 유치

원 교사의 경우와 동일하다. 그러나 A의 경우 유치원 교사는 30대에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에(김규수, 이병래 1995), 사서교사는 가장 낮게 나타났다. 사서교사의 경우에는 오히려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A가 줄어들었다. 그러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F < .05$)를 보이지는 않았다.

AC의 긍정적인 측면은(〈표 2〉 참조) ‘의사 결정에 있어서 신중하고 조심성 있는 태도’를 갖는 것이지만, 지나치면 ‘상대의 눈치를 보고 비위에 맞추어 자신의 감정을 억압하는 태도’를 가질 수 있다. 사서교사의 연령대별 자아 상태 유형을 이고그램으로 제시하면 〈그림 4〉와 같다.

〈표 5〉 사서교사의 연령대별 자아 상태 유형 분석 결과

연령	N	CP			NP			A			FC			AC		
		M	SD	F	M	SD	F	M	SD	F	M	SD	F	M	SD	F
20	7	39.14	2.19	.363	40.43	4.47	.134	37.00	2.31	.171	36.71	5.44	1.008	41.14	2.91	.720
30	61	39.84	2.76		39.67	3.41		37.54	2.91		36.97	4.37		39.31	3.89	
40	27	40.29	3.60		39.93	3.53		37.22	3.59		38.19	3.28		38.81	4.72	
50	5	40.40	2.41		39.40	3.13		38.00	2.65		39.40	2.61		38.20	3.70	
계	100	39.94	2.94		39.78	3.46		37.44	3.03		37.40	4.12		39.25	4.06	



〈그림 4〉 사서교사의 연령대별 자아 상태 이고그램

학교 급별 사서교사의 자아 상태를 분석한 결과 〈표 6〉 및 〈그림 5〉에서 보는 것처럼 초등학교 사서교사는 NP-CP-AC-A-FC 순으로 NP 중심의 자아 상태를 보였다. 중학교 사서교사는 CP-AC-NP-A-FC 순으로 CP 우위의 자아 상태를 그리고 고등학교 사서교사는 NP-CP-AC-FC-A 순으로 NP 우위의 자아 상태를 나타냈다. 특히 NP의 경우 초등학교와 고등학교 사서교사가 높고 중학교 사서교사가 낮게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F < .05$)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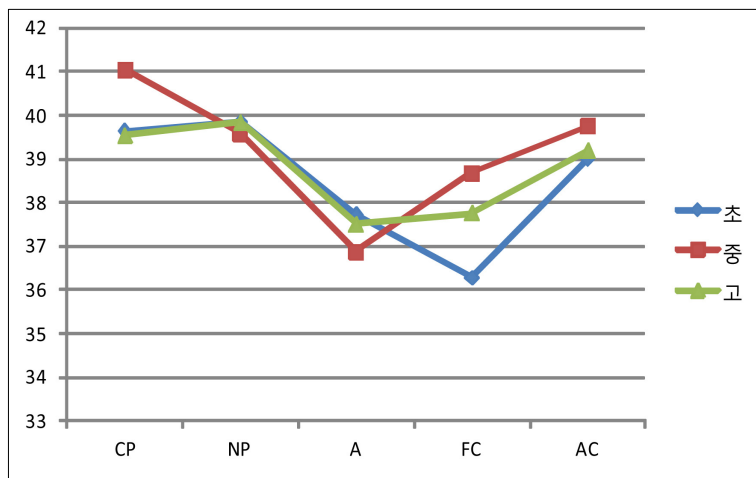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근무하는 사서교사의

경우 FC가 가장 낮게 나타났는데 FC(〈표 2〉 참조)는 ‘생각을 행동으로 곧바로 옮기는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태도’와 관련이 있다. FC가 지나치게 강하면 ‘충동적이고 자기도 취적에서 생활 전반에 질서가 잡혀있지 않은 언동’이 나타날 수 있다. 사서교사의 학교 급별 자아 상태 유형을 이고그램으로 제시하면 〈그림 5〉와 같다.

지역별로는 〈표 7〉과 〈그림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특별시에 근무하고 있는 사서교사는 CP-NP-AC-A-FC 순으로 CP 우위의 자아 상태를 보였으며, 광역시에 근무하고 있는 사서교

〈표 6〉 사서교사의 학교 급별 자아 상태 유형 분석 결과

학교 급	N	CP			NP			A			FC			AC		
		M	SD	F	M	SD	F	M	SD	F	M	SD	F	M	SD	F
초	39	39.64	3.05	2,286	39.85	3.59	.050	37.72	2.68	.587	36.28	4.75	2,805	39.00	4.74	.256
중	24	41.04	2.87		39.58	3.24		36.88	3.62		38.67	2.84		39.75	3.47	
고	37	39.54	2.76		39.83	3.55		37.51	2.99		37.76	3.89		39.19	3.71	
계	100	39.94	2.94		39.78	3.46		37.44	3.03		37.40	4.12		39.25	4.06	



〈그림 5〉 사서교사의 학교 급별 자아 상태 이고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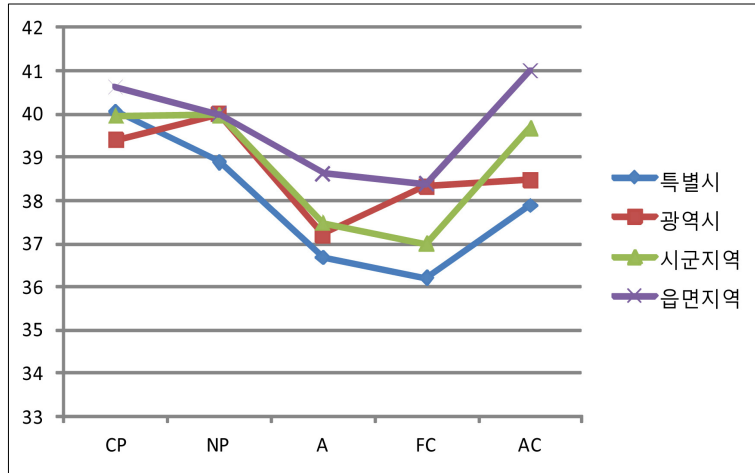
〈표 7〉 사서교사의 근무 지역별 자아 상태 유형 분석 결과

지역	N	CP			NP			A			FC			AC		
		M	SD	F	M	SD	F	M	SD	F	M	SD	F	M	SD	F
특별시	19	40.05	2.48	.573	38.89	3.67	.505	36.68	3.99	1.275	36.21	4.48	1.382	37.89	4.05	2.220
광역시	25	39.40	3.01		40.00	3.80		37.20	3.06		38.32	3.65		38.48	5.36	
시·군	40	39.95	2.95		39.98	3.18		37.48	2.57		37.00	4.28		39.68	3.08	
읍·면	16	40.63	3.38		40.00	3.48		38.63	2.66		38.38	3.81		41.00	3.37	
계	100	39.94	2.94	39.78	3.46	37.44	3.03	37.40	4.12	39.25	4.06					

사의 경우에는 NP-CP-AC-FC-A 순으로 NP 우위의 자아 상태를 나타냈다. 시·군지역에 근무하는 사서교사는 NP-CP-AC-A-FC 순으로 NP 중심의 자아 상태를, 읍·면지역에 근무하는 사서교사는 AC-CP-NP-A-FC 순으로

로 AC 우위의 자아 상태를 보였다. 그러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F < .05$)가 나타나지는 않았다.

사서교사의 지역별 자아 상태를 이고그램으로 제시하면 〈그림 6〉과 같다.



〈그림 6〉 사서교사의 근무 지역별 자아 상태 이고그램

4.3 분석 결과 요약

본 연구에 참여한 사서교사의 전체적인 자아 상태는 NP와 A가 높게 나타난 다른 교사들의 선행 연구 결과와는 달리 CP와 AC가 높은 V형(햄릿형)을 보였다. NP는 엄하고 비판적인 성격의 CP보다 다소 낮게 나타났다. NP는 친절, 동정, 관용적인 태도와 관련이 있으며 교사에게 기대되는 바람직한 자아 상태이다. 그리고 P와 C를 중재하고 자신을 보다 현실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A와 자기표현 및 학생의 호기심이나 창의성 개발과 관련이 깊은 FC는 낮게 나타났다.

CP가 높다는 것은 사서교사가 자신의 가치관과 신념을 바른 것이라고 여기고 있으며 양보하려 하지 않고 규칙과 규범을 강조하는 긍정적인 경향이 강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반면에 독단적이고 지배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다는 부정적인 해석도 가능하다. 특히 AC가 높고 FC가 낮게 나타난 것은 사서교사가 자신의 감

정이나 요구를 감추고 권위에 순응하며 윗사람의 기대에 부응하려는 경향이 강함을 보여준다. 또한 자기주도적으로 일처리를 하기보다는 타인에게 의지하거나 자기 비하적인 경향이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사서교사는 자신의 신념을 밀고 나갈 것인가(CP) 아니면 타협(CP)할 것인가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을 적절하게 처리할 합리적인 대안을 갖고 있지 못하고(낮은 A), 자신을 쉽게 표현하지도 못하는 상태(낮은 FC)라고 볼 수 있다.

사서교사의 이러한 자아 상태 유형이 교육공동체의 여전한 학교도서관과 사서교사에 대한 이해 부족이나 경영상의 어려움, 교수자로서의 역할 제한에서 오는 것일 수도 있다. 왜냐하면 사서교사는 자신의 활동과 역할 그리고 평가 측면에서 '불공평하고, 초라하며 영향력이 없고 무시당할 뿐만 아니라 비활동적'이라고 느끼는 부정적인 자아상(변우열, 이병기, 송기호 2013, 44)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

문이다.

사서교사의 자아 상태를 성별로 분석한 결과 평균 점수를 기준으로 남자는 CP, 여자는 NP 우위의 자아 상태를 보였다. 연령상 20대는 AC, 30대와 40대 그리고 50대는 CP 우위의 자아 상태를 나타냈다. 그리고 특별시에 근무하는 사서교사는 CP 우위를 광역시와 시·군 지역에 근무하는 사서교사는 NP 우위를 그리고 읍·면지역의 경우에는 AC 우위의 자아 상태를 보였다. 그러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 ($F<.05$)를 보이지는 않았다.

학교 급별 사서교사의 자아 상태는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NP, 중학교는 CP 그리고 고등학교는 NP 우위의 자아 상태를 나타냈다. 특히 NP의 경우에는 초등학교와 고등학교 사서교사가 높고 중학교 사서교사가 낮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F<.05$)를 보였다. 즉 초등학교와 고등학교 사서교사에 비해서 중학교 사서교사가 규율과 규범을 강조하는 보다 엄격한 성격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5. 결론 및 제언

구성주의 교육 환경에서 정보활용교육을 통해서 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지도해야 하는 사서교사에게 동료교사와 학생 간의 적절한 의사소통능력은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교사의 자아 상태는 학생에게 학습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함으로써 학생이 자신의 삶과 연계하여 지식을 재구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의사소통능력과 연계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사는 '본인의 현재 자아 상태를 확

인하고, 시기와 상황에 따라서 학생과 원만하고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학생의 자아 상태까지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자아 상태 간의 혼란이나 배타 없이 객관적, 합리적인 자아 상태를 중심으로 자율성과 긍정적인 생활 자세를 가지고 본인의 다양한 에너지를 알맞게 배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이은주 2007, 132). 즉 교사는 A를 중심으로 P와 C를 적절하게 통제하고, 학생을 따뜻하게 보살필 수 있는 NP와 학생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수용하고 장려할 수 있는 FC 우위의 자아 상태를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CP가 높고 A와 FC가 낮게 나타난 사서교사의 자아 상태는 교수자로서의 역할 수행에 걸림돌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사서교사가 교수자로서 동료 교사나 학생과 좀 더 효과적인 의사소통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NP와 A 그리고 FC를 높이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교류분석에서는 자아 상태를 활성화시키는 다양한 기법과 태도를 설명하고 있다(우재현 2013, 35-46; 박명희 2004, 21-24). 특히 일상생활에서 이루어지는 화법과 관련된 언어와 태도를 통해서 부족한 자아 상태를 활성화 할 수 있다(〈표 2〉 참조). 예를 들면 NP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그것이 당신의 좋은 점입니다. 잘 했습니다. 좋은 취미를 가지셨군요.'와 같이 용기를 북돋아 주거나 긍정적이고 여유 있는 화법이 효과적이다. 그리고 아이에게 스킨십을 하거나 타인의 부탁을 기분 좋게 받아들이는 태도를 갖는 것이 좋다. A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좀 더 상세히 설명해주세요. 잠시 생각할 시간을 주십시오. 어디를 어떻게 바꾸고 싶습니까?'와 같이 상대방을 배

려하고 경청하는 화법이 도움이 된다. 또한 교
통기관의 시간표를 기록해 두거나 정확하게 예
산을 잡아서 행동하는 태도를 갖는 것이 도움
이 된다. 또한 FC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그것 참 재미있는 것 같네요. 해보도록 하겠습
니다. 나도 함께 끼워 주세요. 즐겁시다.'와 같
이 능동적이고 유머가 가미된 말을 구사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대자연을 접하거나 재미있
게 몰두할 수 있는 일을 갖고 적극적으로 행동
하는 태도를 갖는 것이 도움이 된다.

또한 화법 측면에서 교과교사의 의사소통능
력 신장을 기르기 위해서 '수업일지쓰기, 학생
도우미교사와 수업평가지 활용하기, 동료교사
의 참여 관찰 활용하기, 교사 자신의 비언어적
동작 관찰하기'와 같은 자기 반성적 분석 방법
이 활용되고 있다(심영택 2003, 168-169). 따
라서 사서교사도 A와 NP 그리고 FC를 활성화
하기 위해서 도서관 학생이나 학부모 자원봉사
자와 함께 '도서관 운영일지 쓰기'를 한다거나,

도서관활용수업에 참여한 동료교사와 '협동수
업평가지'를 작성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사서교사가 교수자로
서 자신의 역할에 대한 신념을 갖고 학교 현장
에서 충분한 리더십과 파트너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양성과정을 점검하고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즉 사서교사가 핵심 업
무로 인식하고 있는 교육정보봉사 영역과 교육
용 콘텐츠 개발 그리고 수업용 자료 개발(송기
호 2011, 181)에 대한 교육과정을 양성과정에
서부터 강화할 필요가 있다.

향후 사서교사가 다른 교과교사와는 달리 CP
가 높게 나온 이유에 대한 보다 정밀한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관 종별 사서직의
자아 상태 유형에 대한 비교 분석을 통하여 이
용자와의 원만한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갖춘 사
서 양성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후속 연구를 기
대한다.

참 고 문 헌

- 김규수, 이병래. 1995. 유치원교사의 자아 상태 유형에 관한 연구. 『원대논문집』, 30(1): 319-340.
 김옥희, 박미하. 2011. 교류분석의 의사거래 유형과 Satir의 의사소통 유형 비교. 『교류분석연구』,
 2(1): 35-54.
 김종재. 2006. 『인간관계론: 이론과 응용』. 서울: 박영사.
 김종호. 2008. 교류분석(TA)의 자아 상태 측정을 위한 한국형 Egogram척도개발. 『상담학연구』,
 9(3): 877-903.
 김종호. 2009. 교류분석을 통한 청소년들과의 대화 기법. 『상담과 지도』, 14(3): 83-99.
 박명희. 2004. 『에고그램에 나타난 성격유형과 애착이 심리적 안녕감 및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 박화윤, 최인숙, 천은영. 2003. 예비 유아 교사의 자아 상태 유형에 관한 연구. 『한국영유아보육학』, 34: 339-365.
- 변우열, 이병기, 송기호. 2013. 사서교사의 자아상 검사 도구 개발과 자아상 분석.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4(2): 31-47.
- 송기호. 2011. 사서교사의 맞춤형 심화연수 프로그램용 연수과목에 대한 선호도 분석.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5(2): 163-184.
- 심영택. 2003. 교사 화법의 개선 방향과 방법 연구. 『화법연구』, 5: 143-174.
- 오영희 외. 2008. 유아교육기관 교사의 직무만족도에 관한 연구: 자아 상태와 스트로크를 중심으로. 『유아교육학논집』, 12(2): 381-400.
- 우재현. 2008. 『교류분석(TA) 입문』. 제2판. 대구: 정암서원.
- 우재현. 2013. 『이코그램 243패턴: 성격의 진단과 개선』. 제8판. 대구: 정암서원.
- 이병래. 1997. 자아 상태 검사척도 개발 연구. 『열린유아교육학회지』, 1(1): 141-164.
- 이성태. 2006. 『인간관계론』. 서울: 양서원.
- 이은주. 2007. 교사의 대인 의사소통 유형에 관한 고찰. 『커뮤니케이션학연구』, 15(2): 109-138.
- 이은주. 2011. 교류분석을 통해 살펴본 예능교사의 교수행동특성에 관한 연구. 『문화예술교육연구』, 6(1): 99-124.
- 이태영, 김명하. 2013. 예비 유아교사의 학년별 교수신념, 교사효능감, 자아 상태의 특성에 대한 비교 연구. 『유아교육학논집』, 17(6): 99-117.
- 최창호. 2011. 『개인의 자아 상태 요인과 직무태도와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 한국교류분석협회. 2012. EGO-OK GRAM [online]. [cited 2014.3.15].
<<http://www.ta.or.kr>>.
- Doll, Carol A. and Beth Doll. 2010. *The Resilient School Library*. California: Libraries Unlimited.
- Dusay, John M. 1993. 『이코그램』. 우재현 옮김. 대구: 정암서원.
- IFLA/UNESCO. 2002. *School Library Guidelines* [online]. [cited 2014.5.14].
<<http://www.ifla.org/files/assets/school-libraries-resource-centers/publications/school-library-guidelines/school-library-guidelines.pdf>>.
- Montiel-Overall, Patricia. 1995. "A Theoretical Understanding of Teacher and Librarian Collaboration (TCL)." *School Libraries Worldwide*, 11(2): 24-48.
- Novojenova, Rima and Sawilowsky Shlomo S. 1999. "Measurement of Influence of the Teacher's Personality on Student in the Classroom." *Social Behavior and Personality*, 27(5): 533-544.
- Sarason, Irwin G. and Barbara R. Sarason. 2001. 『이상심리학』. 김은정, 김향구, 황순덕 옮김. 서울: 학지사.
- Steiner, Claude. 2005. 교류분석: 정교한 이론과 실제. 권화순 역. 『교류분석과 심리사회치료연구』,

3: 104-114.

Williams, Kathryn B. and John E. Williams. 1980. "The Assessment of Transactional Analysis Ego States."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4(2): 120-129.

Woolfs, Blanche. 1999. *The School Library Manager*. 2nd ed. Westport: Libraries Unlimited.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Byun, Woo Yeoul, Byeong Ki Lee, and Gi Ho Song. 2013. "The Study on the Development of the Measurement Tool and Analysis of Self Images for Teacher Librarians."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4(2): 31-47.

Choi, Chang Ho. 2011. *A Study on Relationship between the Personal Ego State and Job Attitude*. M.A. thesis, Hanyang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Dusay, John M. 1993. *Egogram*. Translated by Woo, Jae Hyoun. Daegu: Jeongamseowon.

Kim, Jong Ho. 2008. "Development of Criterion of Korean Egogram for Measuring Ego-state in Transactional Analysis." *Korea Journal of Counselling*, 9(3): 877-903.

Kim, Jong Ho. 2009. "Communication Skills with Young People through Transactional Analysis." *Sangdam and Jido (The Korean Counselor's Association)*, 14(3): 83-99.

Kim, Jong Jae. 2006. *Human Relation*. 2nd ed. Seoul: Bakyounghsa.

Kim, Kyu Soo and Byung Nae Lee. 1995. "A Study of Kindergarten Teacher's Egogram." *THESES (Wonkwang University)*, 30(1): 319-340.

Kim, OK Hee and Mi Ha Bak. 2011. "Comparison between Transactional Analysis and Satir Communication Styles." *The Journal of Korea Transactional Analysis Research*, 2(1): 35-54.

Korean Transactional Analysis Association. *EGO-OK GRAM* [online]. [cited 2014.3.15]. <<http://www.ta.or.kr>>.

Lee, Byung Nae. 1997. "A Study on the Validation of the Egogram Checklist." *The Journal of Korea Open Association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1(1): 141-164.

Lee, Eun Joo. 2007. "A Study on The Patterns of Interpersonal Communication of Teachers." *Korean Journal of Communication Studies*, 15(2): 109-138.

Lee, Eun Joo. 2011. "A Study on the Teaching Behavior Characters of Aesthetics Education on Transaction Analysis." *Korean Journal of Culture and Arts Education Studies*, 6(1): 99-124.

- Lee, Seong Tae. 2006. *Human Relations*. Seoul: Yangseowon.
- Lee, Tae Young and Myung Ha Kim. 2013. "Differences in Pre-service Teachers' Educational Beliefs, Teacher Efficacy, and Ego State according to Grade Level." *Early Childhood Education Research & Review*, 17(6): 99-117.
- Oh, Young Hee et al. 2008. "Correlational Research between Job Satisfaction and Egogram: Stroke of Kindergarten Teachers." *Early Childhood Education Research & Review*, 12(2): 381-400.
- Park, Myeong Hee. 2004. *The Effect of Ego-states of Egogram and Attachment on Psychological Well-Being and Work Satisfaction*. M.A. thesis, Han Yang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 Park, Wha Youn, In Sook Choi, and Eun Yeong Chon. 2003. "The Study on the Ego State Type of the Preservice Teacher." *Journal of Korean Child Care and Education*, 34: 339-365.
- Sarason, Irwin G. and Sarason, Barbara R. 2001. *Abnormal Psychology*. Translated by Kim, Eun Jeong, Hyang Goo Kim, and Soon Duk Hwang. Seoul: Hakjisa.
- Shim, Young Taek. 2003. "A Study on the Remedy Direction of Teacher's Classroom Talk and the Remedy Method of their's Talk." *Korean Speech and Discourse Analysis*, 5: 143-174.
- Song, Gi Ho. 2011. "An Analysis of Teacher Librarians' Preference on Subjects for their Customized Intensive In-Service Training Program."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5(2): 163-184.
- Steiner, Claude. 2005. "Transactional Analysis: Delicate Theory and Practice." Translated by Kwon, Hwa Soon. *Transactional Analysis and Psychosocial Therapy*, 3: 104-114.
- Woo, Jae Hyoun. 2008. *Induction of Transactional Analysis*. 2nd ed. Daegu: Jeongamseowon.
- Woo, Jae Hyoun. 2013. *Egogram Pattern 243: Assessment and Improvement of Personality*. 8th ed. Daegu: Jeongamseowon.

[부록] 이고그램 체크리스트

문항 번호	문항	척도				
		매우 그렇다	약간 그렇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1	자기의 손익을 생각하고 행동하는 편이다.					
2	자유롭게 행동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3	남의 말을 가로막고 자기 생각을 말하는 일이 있다.					
4	생각하고 있는 바를 말하지 못하는 성질이다.					
5	다른 사람을 엄하게 비판하는 편이다.					
6	다른 사람에 대해 헤아려 주는 바가 강하다.					
7	상대방의 좋은 점을 잘 알아차리는 편이다.					
8	대화중에 감정적으로 되는 일은 적다.					
9	호기심이 강한 편이다.					
10	시간 약속이나 돈 문제를 소홀히 하는 것을 싫어한다.					
11	사람들로부터 좋은 인상을 받고 싶어 한다.					
12	남의 부탁이라면 거절하지 못하는 편이다.					
13	양보심이 많으며 참는 편이다.					
14	사회의 규칙, 윤리, 도덕 등을 중시한다.					
15	사물을 분석적으로 깊게 생각한 다음에 결정한다.					
16	싫은 일은 핑계를 달아 뒤로 미루는 경향이 있다.					
17	아이들이나 남의 일을 돌보아 주는 것을 좋아한다.					
18	자기 생각을 주장하기보다 타협하는 일이 많다.					
19	감정보다는 이성적인 편이라고 생각한다.					
20	예절이나 규범에 까다로운 편이다.					
21	남의 의견은 찬반양론을 듣고 참고로 한다.					
22	놀이나 음식 등을 만족할 때까지 찾는 편이다.					
23	책임감을 남에게 강하게 요구한다.					
24	타인에 대해 융통성이 있는 편이다.					
25	남의 안색이나 말에 신경을 쓰게 된다.					
26	피로울 때는 참는 편이다.					
27	'해야 한다, 하지 않으면 안 된다'와 같은 말을 자주 쓴다.					
28	말하고자 하는 것을 서슴없이 말해 버리는 편이다.					
29	작은 잘못이라도 호지부지 지나치지 않는 편이다.					
30	남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노력을 많이 한다.					
31	자기감정을 억누르는 편이다.					
32	원하는 것을 손에 넣지 않으면 못 배기는 편이다.					
33	무슨 일이나 사실에 입각해서 판단한다.					
34	'야, 멋있다, 우와'와 같은 감탄사를 자주 쓴다.					
35	자신이 없고 열등감을 느낄 때가 있다.					
36	여러 가지 책을 많이 읽는 편이다.					
37	농담을 잘하는 편이다.					
38	화내는 일이 많은 편이다.					
39	좋다, 나쁘다를 분명하게 말한다.					
40	앞으로의 일을 냉정하게 생각하고 행동한다.					
41	잘 모르는 것은 질문이나 상의해서 처리한다.					
42	아이들이나 아랫사람의 잘못에 대해 관대하다.					
43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여 공감하는 편이다.					
44	아이들이나 아랫사람을 엄격히 교육시킨다.					
45	흥에 겨우면 도에 지나친 행동을 할 때가 있다.					
46	길을 몰으면 친절히 가르쳐 준다.					
47	감정이 풍부하고 눈물이 많은 편이다.					
48	친구나 가족들에게 무엇이든 사주는 것을 좋아한다.					
49	몸이 좋지 않을 때는 자중해서 무리를 하지 않는다.					
50	동정심이 많다고 생각한다.					